

#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된 진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의 한 시인이 표현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온 지난 두 달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아름다운 봄마저도 앗아갔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 중지’라는 미증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미사가 중지 되면서 서울주보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이 주보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 두기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차 간 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간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거리 두기는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집착이나 애착, 정서 불안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기생할 숙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집콕방콕(?)을 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일상의 고마움,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른 이의

##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무기한 중단

교구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현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에 맞춰 4월 6일부터 미사를 재개하도록 추가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안내 공문 및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31일, 학생들의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구는 미사 재개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4월 1일 임시 사제평의회를 비상소집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2. 미사 재개를 전제로 했던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취소됩니다. 단, 개별고백을 통한 부활 판공성사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유효합니다.
3. 성유축성미사는 사제평의회 위원만 참석하도록 합니다.
4. 성주간 전례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기쁨의 평화방송(생방송, 유튜브)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실행하기 →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 채널 추가하기

Ch 서울주보

상처를 돌보는 사람, 그들이 찢(?) 신자인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연히 이웃사랑에 관해 묵상을 하게 합니다. 생명공학자들은 너와 나의 차이가 0.1%라고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삶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웃에게 먼저 행하는 성숙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나의 삶이 전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형제님께서 메일 한 통을 딸의 사진과 함께 보냈습니다. 의사인 딸이 매일 병원에서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몹시 불안해하시며 저에게도 기도를 청했습니다. 저는 난생처음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보호장비를 입고 일하는 딸의 사진을 보내 기도를 부탁했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득 예전에 성당 문에서 본 글귀가 생각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